

2025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2.25.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5	1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부위원장, 장래숙 위원, 이진희 위원,
윤지석 위원, 김미화 위원, 정성일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6	-	-	11	-	11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1	-	-	11

다. 전월(1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하나시티즌 전지훈련 보도> 전지훈련 보도를 4회차로 나눠서 보도한다고 했는데 4회차까지 보도할 내용인지 궁금함.	겨울 시즌에 지역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전지훈련을 떠나는데 스포츠 담당자가가 동행해서 아이টেম을 짜다보니 4곡지로 진행하는 것임. <25. 2월 조치>	'25.1월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코너가 6차례 보도 했는데 세종보 농성 등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끝까지 취재를 하셔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람.	지난 한해 어떻게 사회가 변했는지 챙겨보고자 코너를 기획한 것인데 지역의 이슈들에 대해 그 타이틀 품으로 완성도 높은 뉴스를 만들겠음. <25. 2월 조치>	'25.1월
보도	<현대제철 관련 보도> 현대제철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뉴스를 보시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취재를 해줬으면 함.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서도 '취재가 시작되자' 라는 타이틀 품으로 지속적인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음. <25. 2월 조치>	'25.1월
보도	<부석사 불상 관련 보도> 부석사 불상 100일 동안 행사가 대전에서 시작해 서산으로 가는데 행사내용, 학계외견, 국민감정 등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길 바람.	부석사 불상 문제는 대법원에서 반환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해외 반출 문화재 문제와 같이 엮을 수 있다면 기획보도를 준비하겠음. <25. 2월 조치>	'25.1월
교양	<건강플러스>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고 OX퀴즈도 사라져서 아쉬운 면이 있음. 자막 등 시각적 전달은 잘됨.	1월에 담당PD가 바뀌었고 작년에 이전 담당PD가 세트와 자막포맷 등을 바꿔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의견을 전달하겠음. <25. 2월 조치>	'25.1월
교양	<성우 내레이션 관련> 성우 내레이션이 프로그램 속에 녹아드는 목소리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신우호 성우의 목소리는 화면과 잘 어우러진 것 같음.	남성성우와 여성성우가 번갈아서 내레이션을 하는데 출연자의 성별에 따라 성우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잘 녹아들어가고 있음. <25. 2월 조치>	'25.1월
교양	<은퇴 후 세계여행> '은퇴 후 세계여행' 코너는 한번만 하기에 너무 아쉬워 연속 아이টেম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음.	해당 유튜브는 강원도 사시는 분으로 고정으로 모시려고 제의를 했는데 거리도 멀어서 매월 출연은 어렵지만 분기에 한번은 출연할 예정임. <25. 1월 조치>	'25.1월
기타	<열린TV 미디어리뷰 업로드> 열린TV 미디어리뷰는 대전MBC가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길 바람.	홈페이지에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음. <25. 1월 조치>	'25.1월
기타	<자막 맞춤법 관련>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자막 맞춤법이 틀리면 프로그램 전체의 품격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주의해주기 바람.	자막은 PD가 자막 뽑을 때, 자막담당자가 자막 친후, 그리고 자막 입힐 때 최종 확인을 하는데 가끔 누락되는 부분이 있음 더 신경 써서 틀리지 않도록 대처하겠음. <25. 1월 조치>	'25.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2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월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속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사회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협회장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김하늘 양 관련 명칭>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라고 계속 보도되면서 이름을 계속 '룬다 보니까 그 뉴스를 접하는 지인들의 충격이 이 중상중이겠다는 생각이 듭	회의록 첨부	○		
보도	<안전한 학교 관련 보도>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첨부	○		
보도	<갈등 해결을 위한 보도> 김하늘 양 관련 후속보도를 보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보도 필요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역 의료 보도 관련> 지역 종합병원에 이직률이 많고 신규 의료진이 충원되지 않아 의료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심층 취재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뉴스 제보 및 채택 > 뉴스 제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뉴스로 채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소년소녀합창단 활성화> 소년소녀 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초대석을 진행했는데 대전MBC의 자부심인 만큼 활성화됐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지역 문화계 소식> 대전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는데 박석신 화가 등 소개가 좋았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주제 > 금강과 보문산 환경 문제, 입법부 및 행정부 세종시 이전, 대전 트램, R&D 예산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의정갈등 토론 관련> 의정갈등이 의사계와 정부간의 갈등인데 실제 정부쪽 패널이 없어서 토론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음	회의록 첨부	○		
교양	<토론 화면 그래픽 구성> 수치를 얘기할 때 도표나 그래픽을 활용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었음	회의록 첨부	○		
교양	<태권도 행사 중계 관련> 태권도 행사를 중계하면서 진행자가 외국 참가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라만 언급하던데 이름을 중심으로 불러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2025년 2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부위원장, 장래속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정성일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오늘 회의 참석은 위원님 총 10분 중에 7분입니다. 손병우 위원장님은 조금 늦으신다고 하셔서 오시기 전까지는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회의에 앞서 공지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30일자로 시청자위원님 7분이 아쉽게도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임식은 4월 29일 화요일에 시청자위원회 자리에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내부 절차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3월 28일까지 후임 시청자위원을 공모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회의이후 시청자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은 총 8건입니다. 편성 불만 1건 그리고 기타 문의, 요청, 제보 등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날씨가 며칠 조금 춥다가 오늘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이 있었지만 봄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점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의견 귀하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번에는 박주영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누그러진 마음으로 시청자위원회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래속 위원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장래속 위원

2월 한 달은 뉴스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대부분 많이 보지 못해서 뉴스 얘기는 하지 않고요. 2월 23일 <인생내컷>에서 '280일의 기적! 태교 전문가' 방송이 너무 좋았습니다. 태교가 엄청 중요하고 12주부터 19주 사이에 지문이 만들어지고 그 15%의 DNA를 가지고 아이가 자라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태교의 중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2월 19일 <오늘M>에서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초대석을 진행했는데요. 21일에 행사를 진행했고 저는 MBC하면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앞으로도 합창단의 발전 방안과 해외 공연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학교 졸업식 관계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진행해 주신 박주영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니터 결과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다음은 박주영 부위원장님 해 주시죠

박주영 부위원장

<시시각각>을 봤는데요. 불행한 사건이었죠.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건 어찌 됐든 불행하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는데 교사노조에서 선생님이 패널로 나오셨더라고요. 진행하시는 분도 어려운 자리하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칫 전체 선생님이나 특히 우울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언급도 하셨고 그럴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을 배제시켜줄 수 있는 패널을 모셔서 균형 감각 있게 진행해 주셨던 부분이 눈에 띄었고 그 부분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내실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이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올해 2월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사안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뉴스를 취재하거나 진행하시는 데 힘이 드셨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집회도 계속됐는데 잊지 않고 가셔서 현장에서 늘 보도해 주시고 또 반대 집회도 균형감 있게, n분의 1의 균형감은 아니

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M>이나 <인생내컷>을 통해서 소소한 삶이나 정보 제공, 진지한 삶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간 것을 시의 적절하게 <시시각각>에서 같이 진지하게 나눠주시는 부분들...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을 각각 잘 다뤄주셨던 것 같고, 고병권 기자님이 올해부터 <시시각각>을 새롭게 진행하시게 되어서 조금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복지업계에서는 재개발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용두동쪽 호수돈여고 앞에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지역사회 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재개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여서 논의 중에 있는데 재개발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자본 위주로 움직여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돼, 주택가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효율성만 중요하게 하는 사회에서 그 지역사회복지관이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맺어가는 부분들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 혹시 관심 있으면 그런 부분을 큰 차원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미화 위원

이번 달이 다른 달보다 대전MBC 뉴스가 전국 방송을 많이 탄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김하늘 양 사건이라고 해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이라고 피해자 이름이 계속 보도되다 보니까 그 학생을 아는 지인들이나 학교 학생들이 그 뉴스를 접하면서 충격이 이중 삼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MBC에서 보도할 때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전교육청에서 시스템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하면서 시민기자회견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대전시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데려오는 일을 할 사람들을 자원봉사자 아르바이트처럼 뽑고 있던데 급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원인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교사의 정신 이상적인 행동이 살해에 이르기까지 한 정신적인 심각성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많이 놓쳤으니까 여기까지 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몇 명의 선생님들이 타깃이 되니 그런 게 걱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 교사가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후속적으로 보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후에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관심 갖기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늘M>프로그램에서도 대전 지역에서 너무 큰 사안이다 보니까 김하늘 양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 하고 그 시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같이 언급해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또 대전 지역 문화예술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박석진 화가가 이름 꽃 미술관을 개관했고 소통하는 화가이고 특히 사람과 가까이하는 예술가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문화 나들이 코너에서 보여준 점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생내컷> 280일의 기적 태교 전문가 장순상 편을 의미 있게 봤는데요. 보기 드문 분야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특히 요즘에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 나온 분들이 생명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기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촬영을 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가질 단계에서부터 아빠 태교 엄마 태교, 또 그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엄마랑 아기랑 동반 성장하는 내용들을 따뜻하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성일 위원

2월 주요 이슈였던 김하늘 양 사건과 내란 관련 보도는 지역 방송에 맞게 잘 보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하늘 양 관련 보도는 후속 조치와 관련된 문제까지 계속해서 보도되는 걸 봤는데 다소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보도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논의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언론이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현대제철, 교복 카르텔, 세종보, 5인 미만 사업장 등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여전히 제대로 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잘 봤고요. 교복 카르텔 문제도 계속 취재가 되고 있고 윤소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취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니 힘내서 끝까지 계속 심층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보 문제 같은 경우는 농성이 곧 1년이 다가오는데 단신으로 한번 보도됐고, 문제를 일으켰던 5인 미만 사업장이 청주해장국과 중앙종합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보도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저 출산 시대에 그나마

정부에 기대를 했던 건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죠. 여기에 세종시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를 하는 보도를 낸 걸 봤는데요. 그런 보도를 내보내주는 건 좋은데 추가적으로 대전과 충남의 입장은 어떤지 그런 부분까지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기대하는 부분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프로그램들을 지난부분까지 짚 봤는데 ‘무엇에 대한 충청 민심’ 이런 식으로 제작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지역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주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지역 의제로 볼 수 있는 금강과 보문산 개발과 환경을 지키는 갈등에서도 토론이 흥미진진하게 있을 것 같고요.

세종시에 입법부, 행정부가 이전해 온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전 트램 문제나 R&D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토론이 진행되면 흥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대전 세종 충남의 특색 있는 주제에 대해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가 다시 토론주제로 진행됐는데 패널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동의해서 아쉬웠는데요. 말 그대로 의정 갈등이 의사계와 정부간의 갈등인데 정부 측 패널은 없었습니다. 의정 갈등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의사, 정부 혹은 민간, 의사, 의료 종사자, 정부 이런 3자 혹은 4자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의정 갈등에 대한 주제를 던졌는데 대화의 흐름은 민간과 의사간의 갈등, 의사와 의료계 종사자 간의 갈등이 헛바퀴 도는 듯한 토론으로 돌아 보니까 시청자가 보기에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자체를 좀 더 색다르게 고민해 보든 아니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토론 자체가 흥미진진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정부측은 진짜 섭외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들도 알아야 답을 할 텐데 아마 정책상 모르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답답하던데요. 다음은 윤지석 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지석 위원

제가 의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의정 갈등에 너무 힘들거든요. 전문의하고 의사들이 배출돼야 되는데 하수구가 딱 막힌 느낌입니다. 저희 병원의 예를 들면 의사가 유학을 떠나서 없는데 전문의가 새로 유입이 안돼서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에 제가 소개한 최한나 대한의사협회 전 대변인이 출연해서 집중해서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보면서 계속 시원한 물이 없이 고구마만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4명의 패널이 각각 자기 얘기를 하고 정부 측 얘기는 없다고 했는데요.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하려

면 정부, 시민, 의사 이렇게 출연하는데 대개는 의사들이 시민측과 연대해서 2대 1로 토론이 되거든요. 정부 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각자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제작 담당자인 고병권 팀장이 질문을 미리 줬을 텐데요. 답답한 느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픽이나 도표들을 같이 사용했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빠져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현재 의대 교수들이 정년퇴직 전에 이직률이 467명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인제대 72명, 한림대 41명, 을지대 38명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해줘서 보는 사람도 지역 의료가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대전MBC에서는 그런 그래픽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지금 충남대병원에 피부과 전문의가 6명인데 3명이 빠져나갔거든요. 지역 의료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내외 소산이라고 내과가 가장 중요한 의사거든요. 충남대병원에 보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해 주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서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현재 충남대병원 레지던트 정원 중에서 몇 명밖에 충원이 안 됐는데 그나마 사직을 했고 정부가 백기투항을 해도 안 돌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한 연차당 11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충원은 8명 정도일 겁니다. 근데 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방 병원 의료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층 취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인구당 병상 수 15.7명, 1천 명당 의사 수 3.8명 등 이런 수치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자막 처리를 한다든지 반투명 그래픽을 활용해서 끝난 다음에 덧입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패널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대전 의료원 분이죠. 섭외할 때 예방의학과 교수님들이 이 파트의 전문가니까 충남대나 건양대 예방의학과 교수님들을 섭외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 뉴스 관련해서는 지역 간 서로 뉴스를 교환해서 타 지역의 뉴스도 볼 수 있었는데 전주 MBC 뉴스가 대전MBC 뉴스에 나오던데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2월 10일자 전주MBC ‘못난이 농산물 유통’ 뉴스를 보고 우리 지역도 본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월 20일과 21일 인도네시아 논산 딸기 축제 소식은 윤소영 기자가 직접 가서 현장 소식을 전하니까 좋았습니다. 2월 10일과 22일 홍성군수와 논산시장이 직접 출연했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민간인 리포터라든지 자원봉사자 등이 나오면 그 분들도 MBC를 더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2월 24일 뉴스에서 대전천 준설이 나왔는데 저는 매일 대전천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여름만 되면 하천이 범람해서 준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준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생각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안 좋게 얘기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하는 것은 결국은 한 번은 뚫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설은 할 때는 됐는데 이런 입장도 내보내주면 어떨까... 외국 여행을 하다보면 천변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과 테니스장도 있고 롤러스케이트장도 있는데 대전천에는 그냥 꽃만 자꾸 심는 게 과연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혹시 뉴스 제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뉴스로 채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병우 위원장

저도 인도네시아 논산 딸기 축제 재미있게 봤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딸기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쪽 딸기는 조그맣고 당도도 낮고 그에 비해서 우리 논산 딸기는 크고 당도도 높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끝나던데요. 그 당도 높은 논산 딸기 위에 설탕 초코 같은 것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당도가 높는데 왜 저것을 뿌리지 생각했는데 물론 방송 잘못은 아니고 축제 축에서 한 것이지만 당도 높다고 하면서 뭔가 뿌려서 판매하는 영상과 내용이 상충된 부분이 기억납니다.

준설 관련한 뉴스들을 이전 것들도 찾아봤는데 준설에 대한 쟁점이 TV뉴스에서 그렇게 명료한 쟁점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쟁지에서는 파다가 만 것이 문제라고 나오고 어떤 쟁지에서는 파는 게 문제라고 나오던데요. 대전 3대 하천의 준설과 관련한 쟁점이 대체 정확하게 뭔지 정답 비슷하게 명료하게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여러 쟁지들에서 봤는데요.

아마 신문 기사에서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방송들은 그때그때 준설이 있을 때 취재 나가서 보도하고 그 당시 이슈에만 집중해서 핵심적인 쟁점이 뭔지 잘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런 점이 아쉬웠고요.

홈페이지에서 태권도 행사 영상을 다 봤는데 재미있어서 먼저 회 것도 봤습니다. 이번 달에 한 행사인줄 알았는데 작년 8월에 한 행사더라고요. 오픈 대회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어린 선수들이라서 되도록이면 그 선수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대만 선수, 한국 선수, 이렇게 나라를 부르더라고요. 물론 태권도협회 전문가가 해설하면서 선수 이름도 부르고 특징도 설명해 주던데 어쨌든 최대한 이름을 중심으로 불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우울증 교사의 우울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가급적 연결 짓지 않도록 기사를 쓸 때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가해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제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고 조만간 의료진하고 협의를 해서 대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 교사의 진술을 받아보면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도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말씀하신 김하늘 이름을 자주 쓰는 건 처음에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붙인 법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로 스스로 공개를 결정하셔서 그렇게 계속 썼는데 다시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름을 쓰지 않고 '초등생 피살 사건' 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시각각>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항상 애로사항입니다. 담당이나 직접 연관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데 섭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여러 가지 시인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픽 처리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서 하면 좋는데 저희가 대화의 주제들을 단락단락 드리고 말씀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한계가 있고, 녹화하고 송출 사이 시점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역 뉴스 제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화 제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세 건 정도 들어오고요. 주로 접수되는 제보 경로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영상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대부분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서 가급적 뉴스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천안과 안성 접경 지역에서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나서 현장에 지금 3팀 정도 나가 있는데요.

그 것도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들이 많이 접수가 됐고 그 영상이 방송에 쓰이고 있습니다. 제보자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름을 노출해 드리고 익명으로 하겠다는 분들은 익명으로 하고요. 또 제보 사례비를 요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대회는 작년에 보도국으로 이관돼서 보도에서 제작한 겁니다. 캐스터는 저희 아나운서가 가고 해설자는 태권도 협회에서 해 주시는데 선수 이름을 제가 직접 자막도 쓰고 했지만

이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도 발음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잘못 발음하면 다시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 8월 계룡시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가급적 많이 담아서 제작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말씀해 주신 환경 문제, 세종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문제, 트램, R&D 예산 문제는 <시시각각>을 통해서 많이 소화를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지역 의료가 붕괴 시점이잖아요. 고병원 부장이 그 쪽에 관심이 많아서 크로스 오버 콘텐츠라고 해서 유튜브 전용으로도 나가고 그걸 가공해서 지상파 뉴스에도 방송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에 관련한 디지털 콘텐츠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준비되면 일단 프로그램 제목은 '신 제중원(가제)'이라고 달았는데 지역 의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론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윤지석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장래속 위원님이나 김미화 위원님께서 청소년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초대석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자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가소식에 출연하신 박석신 화가 말씀하셨는데 우울한 시대에 눈이 즐거워지는 그런 문화가 소식들도 자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내컷> 칭찬해 주신 장순상 소장님편은 공교롭게 MBC충북에서 만든 건데 아무튼 이분이 태교계에서는 거의 오은영 박사라고 불리더라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추가로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정성일 위원

MBC에서 본 게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밤에 썼던 기사가 지금 굉장히 날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대전에서 초혼이라는 영화 특별상영회를 진행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대전영화인협회장 취임식을 사전 행사로 했는데 그곳에 서철모 서구청장이 오셨거든요.

그 영화는 9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에 노동운동하던 사람들과 노래하는 학생들과의 연대를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를 거의 대전에서 촬영을 많이 하고 대전 사람들이 엑스트라로도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감독도 대전과 대전 분들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단역으로 출연했던 분들까지 함께 초대해서 특별 시사회와는 별도로 특별 상영회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영화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민주화에 대한 뜻이 높은 사람들인데요. 지난 토요일에 서철모 청장이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잖

아요. 그래서 관객과 서철모 청장이 그와 관련한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서철모 구청장이 현명하게 넘어가지 않고 맞대응을 하면서 갈등이 커진 거죠. 대전 영화인들의 수준이 이럴 줄 몰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기분이 나빠진 단역 배우들이나 사람들이 나가버리고 그 이후에도 남은 관객들하고도 설전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언론에서는 모르고 저만 보도를 한 상황인데 생각해보면 그때 늦었더라도 대전MBC에 말씀을 드리고 제보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장래속 위원

몇 년 전부터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신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엄청나게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대전시에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대전만 하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김하늘 양 관련 보도를 할 때 자막이나 짧게라도 그런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트라우마나 우울증이 생겼을 때 몰라서 전화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석 위원

장래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구에 정신 건강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중독자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소한 건데 저도 생방송이라든지 녹화 중에 긴장하면 불편을 돌리고 싶거든요. 출연진들이 불편을 돌린다든지 특유의 습관들이나 틱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녹화를 잠깐 중단하고 그 분께 자제를 요청하면 시청자들이 볼 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2월이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일시에 다 모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7분이 모여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알찬 여러 가지 모니터 의견들을 많이 제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종재 사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도 고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넉넉하지 않은 인원으로 취재와 제작 활동에 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2월은 우리 지역에서 큰일들도 있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진행되는 사항들도 있어서 현장에서 저희 취재진이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안전이나 또는 취재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취재와 제작에 임하고 있는데도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게 평가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언론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